

“어려운 학생 위해 장학재단 설립”

남원시, ‘문화의 달’ 적극 홍보

(재)광영공익재단 허광욱 명예이사장, 임실군에 5000만원 지원... 올해 세 번째 전달

“학생 여러분이 남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누구를 원망 하기보다 굳은 마음으로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5천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임실군 삼계면 출신 (재)광영공익재단 설립자인 허광욱 명예이사장의 뜻이다.

허 명예이사장의 장학금 기부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벌써 세 번째다.



사진 왼쪽부터 허광욱 설립자를 대신해 심상우 이사장, 심민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허 명예이사장을 대신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심상우 이사장은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25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심 민 군수와 장학생, 가족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심상우 이사장이 재단 설립자인 허 명예이사장의 마음을 전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허 명예이사장은 서신을 통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수없이 원망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국내 최고의 명문대인 서울대를 나와 골지의 대기업 임원이 되기까지의 삶, 그리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그는 1936년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

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난을 겪었다. 중학교 때는 대학에 가려고 12명이 한방에 사는 기숙사 구석 벽장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밤새 공부했고, 대학교 때는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서너 시간 자다가 폐병에 걸렸던 힘들었던 그 시절을 회고했다.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일어난 그는 힘겨운 고학으로 전주사범학교, 서울대 사범대학(영어교육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스탠포드대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마쳤다.

장학재단은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해 5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와 함께 근검절약하며 월급으로 모은 재산으로 설립했다.

나이 팔순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힌 그는 “이 세상이 거칠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노력하는 이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고, 적은 장학금이지만, 광영공익재단의 담긴 마음과 희망을 함께 받아 공부에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학의 결실을 힘겹게 맺은 허 명예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2016년 24명에게 100만원씩 2,400만원, 2017년에는 20명에게 100만원씩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날 격려사를 전달한 심 민 군수는 “고학 사람과 후학양성의 큰 뜻을 배풀어 주신 허광욱 설립자님과 심상우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교육 소외 계층이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노력하여 살기 좋은 내 고향 임실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청국장 DIY 키트’ 개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전북대 김광표 교수 공동연구 성과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청국장 DIY 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키트는 순창의 토착 청국장균과 지역에서 재배한 콩을 주 원료로 제작됐으며, 소비자가 직접 집에서 청국장을 간편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번 ‘청국장 DIY 키트’ 개발은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와 전북대 식품공학부 김광표 교수의 공동연구 성과로, 나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청국장 균주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균주는 순창 지역의 토착 미생물인 고초균으로, 냄새가 적고 기능성 점질물인 감마피지이(γ-PGA)를 다량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키트는 완전 멸균한 순창콩과 순창청국장균(분말)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며, 순창콩에 순창청국장균을 혼합한 후 따뜻한 곳(35-45℃)에 하루(24시간) 정도 놓아두면 청국장이 발효된다.

특히, 소비자가 콩을 직접 구입하고 삶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멸균된 순창콩을 사용하는 점이 이 제품의 큰 강점이다.

실제로, 청국장은 미래 인류에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성 단백질



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식물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국장은 기능성 펩타이드, 필수 아미노산, 이소플라본, 비타민K2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고급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의 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는 제19회 순창장류축제 기간 동안 ‘순창청국장 DIY 키트’를 이용한 청국장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체험자들은 건강에 좋은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에 개발한 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청국장을 쉽게 접하고, 순창의 우수한 발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인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영상 송출·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진행

남원시 홍보팀에서는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광한투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2024 문화의 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보팀은 타 축제와 차별화된 홍보 전개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의 달이 전통문화예를 도시 남원을 만나, 남원에서 문화의 달이 활짝 피어나도록 홍보물부터 남다르게 제작해 송출 중이다.

일례로 ‘대한민국 문화의 달’이 남원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영상은 남원시 브랜드 광고로 송출 중이며, 특히 축제 기간에 펼쳐지는 관소리, 창곡, 농악, 버스킹(거리공연) 등 현장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영상 제작을 통해 관광객의 시선을 다시 한번 이끌 예정이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단순히 축제를



알리는 홍보 외에 남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달’ 홍보 영상 시청 후 댓글 이벤트를 10월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방문 관광객과 오지 못한 잠재 관광객과의 소통 채널까지 마련했다.

홍보물은 남원시 공식 유튜브(남원시 TV), SNS(블로그 남원에 빠지다, 인스타그램 ‘goodnamwon’), 포털사이트(NAVER)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문화의 달 행사 안전점검 추진

남원시는 17일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의 달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광한투원과 예루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집중서유지 및 인파 관리 대책 △시설물 전기, 가스,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남원시 안전관리지문단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 측에 전달, 개막 전에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하고 안전 위생요소를 사전에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며,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백강규 안전재난과장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박차

임실군이 성수면 오류리 일원의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1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입,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2021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24년 국비 2억2천만원을 포함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국비 8억원

을 포함한 예산 12억을 추가 확보했다.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4억(국비 36억, 군비 18억)을 투입하여 성수면 월평, 오류리 일원에 하수관로 5.2km를 신설, 107가구의 생활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심 민 군수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그동안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성과

임실군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임실배과수작목반을 대상으로 추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상승하고 주요 농작업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는 농약 중독 및 근골격계질환 등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약방제복 및 전동가위 등 19종 287개의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원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7회 및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5회를 실시하여 농작업 위험 요소 진단 및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활동을 증진했고, 농업인 안



전 365 캠페인 및 안전 실천 다짐 퍼포먼스에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범사업 결과 병해충방제 및 전지작업 등 배 재배 과정에서 안전관리수준은 889.9점으로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할 때 33.1% 향상됐으며, 위험성 정도는 평균 8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